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기록 경신

전년 대비 234편 증가 1835편 출품 '2년 연속 최다 출품' ... 국내 영화계 침체 속 고무적 성과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2년 연속 한국영화 최다 출품 기록을 경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4편이 증가한 총 1,835편이 출품된 것.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영화 출품작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한국경쟁 165편, 한국단편경쟁 1,510편, 지역공모 46편, 비경쟁부문(장편) 114

편으로 총 1,835편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1,601편 대비 234편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영화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영화 출품기록이 2년 연속 경신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성 들인 영화들을 보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최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여러 한국영화들처럼 관객과 평단

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앞서 접수된 국제경쟁 섹션 662편에 한국영화 출품작 1,835편까지 총 2,497편으로 출품 접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2,348편(비경쟁부문(장편) 제외 2,260편)에서 149편 증가한 수치로 전체 출품작 수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심세보 교수 건축 개인전 개최

13-20일 'Hit et Nunc: 시간과 장소' 주제

전주대학교 심세보 교수(건축학과)는 오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Hit et Nunc: 시간과 장소'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고 밝혔다. 7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심 교수의 세 번째 개인전으로, Hit et Nunc는 라틴어로 '지금, 여기'를 뜻하며, 건축에서 시간과 장소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작품을 통해 건축가로서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세월 속에서 다듬어진 철학과 표현을 비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특히, 20년 전 미국에서의 대학원 시절 형태적이고 개념적인 도정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들과 최근 국내외 건축공모전에 출품되었던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성 있는 작품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이 디자인 철학에 미친 영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세보 교수는 "건축이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는 작업을 넘어, 시대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며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 실험과 정교함, 열정과 성찰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극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진화와 성장을



반영한다. 건축 언어는 심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요소를 아우르며 변화해 왔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창작의 발자취에 녹아드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마을 안녕 · 평화 기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다채

부안군, 제례행사 · 민속놀이
당산제 · 달집태우기 등 진행

부안군은 2025년 을사년 정월대보름(2월 12일)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된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은 우리 고유의 대표적인 세시 명절로써 부안에서는 다양한 제사와 의례가 전해지고 있으며 용줄감기, 당산제, 마당밧기,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등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부안을 오페라모텔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부안 밀알회가 주관해 제례행사, 민속놀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개최됐고 정월대보름 하루 전인 오는 11일에는 내소사 일주문 앞에서 내소사석포리당산보존회가 주관하는 당산제와 용줄감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정월대보름인 오는 12일에 부안지역 곳곳에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온 정월대보름 행사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돌모산당산에서 돌모산당산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진행된다. 또 서외당간지주 및 서문당당산(서외3마을당



부안군은 2025년 을사년 정월대보름(2월 12일)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다채롭게 개최한다.

간지주보존회), 짚음의 거리 물레방아 광장(전통예술원 타무), 상임석리 선돌마을 입석광장(선돌마을입석제보존회), 마포마을(마포당산문화제위원회), 격상마을(격상마을당산제추진회), 지서2마을(마을당산제보존회), 지동경로당(지동경로당), 운호마을(구름호수정보화마

을) 등에서도 다양한 정월대보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한 해의 건강과 행복, 풍요를 기원하며 군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지난 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 위촉식 가져

고창군이 지난 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15명의 위원들은 고창군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비롯해 새로운 세계유산 발굴과 등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 갯벌과 고인돌'이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자문 역할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협의회 정관 승인 및 세계유산축전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고창군은 10월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 갯벌과 고인돌' 축전기간에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공연 등을 통해 고창이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후위기 등 복잡하고 다양한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고창군의 세계유산 어떻게 지켜갈지 논의해 가지"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운수대통 완주 달축제 달아달아 둥근달아' 정월대보름 행사 성료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개최한 '운수대통 완주 달축제 달아달아 둥근달아' 행사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민속놀이를 재해석해 LED 장비를 활용한 달집 태우기, 소원쓰기, 연 만들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40개에 가까운 체험 부스에서는 고누놀이, 장치기, 딱지치기, 굴렁쇠, 활쏘기, 쥐불놀이,

이, 공기놀이 등 민속놀이와 메타버스, 코딩, AI 부스도 다양하게 차려져 큰 인기를 모았다. 닭꼬치, 솜사탕, 해물전, 호떡 등으로 먹거리 부스도 풍성하게 차려졌다. 안전을 위해 난방 히터, 미아보호실, 경찰, 소방, 의료 부스도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눈에 띄었다. 아이들과 전통 풍습을 즐기며 추억을 쌓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가족,

이웃과 함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밝고 둥근 보름달처럼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정월대보름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정월대보름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헌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